창간정신
1. 영생대도의 실천
2. 영생학의 보급
3. 영생문화의 창달

승리신문

자유율법
주님을 초초로 바라보고 고도로 사모하라. 나라는 존재의식을 초초로 죽이고 짓이겨라. 형제의 죄를 내 죄로 여겨라. 인류는 한몸 누구든지 내몸처럼 여겨라.

1985년 1월 18일 창간 隔週刊 제 686호 | The Seungni Shinmun | 2015년 5월 1일 금요일

경축 어버이날

구세주를 인류의 어버이로 영접하신 이들은 복되도다

우리는 어버이날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의 표시로 카네이션을 달아드린다. 카네이션 한 송이로 부모님의 바다와 같은 은혜를 갚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이다. 제대로 된 사람이라면 부모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 알아 그 은혜를 갚기 위하여 제 나름대로 엄청 노력할 것이다. 생명을 담보로 낳아주신 은혜, 자신의 모든 진액을 짜내어 젖을 먹이며 키워주신 은혜, 온갖 허물 잘못 용서해주신 은혜, 잘 키워서 어엿한 성인으로 길러내신 은혜 등등 이루 헤아릴 수 없다. 부모은중경(父母恩重經)과 효경(孝經)은 부모님의 은혜와 효도에 대해서 적어놨는데 이 기회에 읽어보면 좋을 듯하다.

부모은중경에서는 ① 어머니 품에 품고 지켜 주는 은혜[懷耽守護恩], ② 해산날에 즈음하여 고통을 이기시는 어머니 은혜[臨產受苦恩], ③ 자식을 낳고 근심을 잊는 은혜[生子忘憂恩], ④ 쓴 것을 삼키고 단 것을 뱉아 먹이는 은혜[咽苦甘恩], ⑤ 진 자리 마른 자리 가려 누이는 은혜[廻乾就濕恩], ⑥ 젖을 먹여서 기르는 은혜[乳哺養育恩], ⑦ 손발이 닳도록 깨끗이 씻어주시는 은혜[洗濯不淨恩], ⑧ 먼 길을 떠나갔을 때 걱정하시는 은혜[遠行憶念恩], ⑨ 자식을 위하여 나쁜 일까지 짓는 은혜[爲造惡業恩], ⑩ 끝까지 불쌍히 여기고 사랑해 주는 은혜[究竟憐愍恩]의 열 가지 큰 은혜를 설명하였다.

이를 읽어보면 부모님의 은혜가 새삼 더욱 크게 느껴진다.

인류의 어버이, 구세주께서는 잃어버린 당신의 자식을 찾으러 이 땅에 오셨다

인류의 조상은 하나님이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봐야 할 것이 있다. 다름 아니라 바로 부모님을 거슬러 올라가 나오는 최초의 우리의 부모(인류의 조상)는 누구인가 하는 문제이다. 인류의 조상이 없었다면 나도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요 물론 부모님도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에 자신의 뿌리를 아는 문제는 매우 중요한 것이 아닐 수 없다.

자신을 낳아준 부모님으로부터 출발하여 거슬러 올라가면 조부모, 증조부모, 고조부모, 5대조부모, 이렇게 계속 거슬러 올라가면 인류의 조상이 나오는데 그 인류의 조상은 어떤 존재일까? 지금과 같은 사람일까, 아니면 다른 존재일까?

인류의 구세주 조희성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의 조상이라고 말씀하신다. 그분의 말씀에 따르면 우리민족뿐만 아니라 중국인, 일본인, 미국인 등 모든 인간의 조상은 다 하나님이므로 어느 민족이든지 다 천손민족이 된다. 즉 우리 인류는 다 한 조상을 가지고 있는 형제요 자매라는 사실이다. 이러한 것을 깊이 인식하면 절대로 싸움과 전쟁이 있을 수 없다.

마귀에게 사로잡혀 유한한 생명의 존재로 전락되다

인류의 조상이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말하면 의아하게 생각할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하나님은 영이신데 어떻게 육체를 가지고 있는 인류의 조상이 되는가, 라고 물을 것이다.

이에 대한 구세주의 말씀을 들어보자.

영원 전부터 하나님은 삼위일체의 영(하나님, 아담, 그리고 해와)으로 존재하셨는데 그중 아담과 해와는 사망의 영(마귀)에게 지금으로부터 6000년 전에 사로잡혀 아담은 남자가 되었고, 해와는 여자가 되어 현재의 인간의 조상이 되었다. 마귀에게 사로잡힌 아담과 해와는 영생의 존재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유한한 생명체로 전락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마귀에게 사로잡히지 않았던 한 분 남은 하나님은 인류 역사 6000년간 힘과 지혜를 길러 마귀에게 잡혀있는 아담과 해와를 찾아 다시 삼위일체로 회복되기 위하여 노력하였는데 드디어 그 때가 되어,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시어 잃어버린 아담과 해와를 찾아 조희성님의 마음속에서 일체를 이루어 삼위일체를 회복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조희성 구세주는 인류의 조상인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며, 지금 마귀에게 빼앗긴 당신의 자식들을 찾아 구원하는 역사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구세주의 인류에 대한 사랑은 부모님의 사랑보다 훨씬 크다

구세주는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해결해 주는 존재이다.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진다는 것은, 죄가 사망의 영이므로, 사망의 고통을 대신 당한다는 뜻이다. 구세주가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그 죄를 이겨내고 있기 때문에 죽지 않는 영생의 세계가 곧 이루어지게 된다.

하지만 세상의 부모는 자식의 죄를 대신 담당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없다. 자식이 아플 때에 고작 '내가 대신 아파서 자식을 살릴 수 있다면'이라고 희망만할 뿐 정작 그렇게 할 수 없지만 구세주는 대신 고통을 당해서 이겨내어 자식을 살릴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하고 있다.

조희성 구세주께서는 보광하셨지만 지금도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고 계신다. 인류의 죄는 승리제단 신도들을 통하여 일차적으로 담당이 되고, 최종적으로는 구세주께서 담당해 주시는 것이다.

그러므로 구세주는 인류의 진짜 엄마인 것이다. 인류의 구세주이신 조희성님의 크신 사랑에 어떻게 보답할 것인가를 생각해보는 것이 어버이날을 경축일로 지키는 승리제단 신도들의 도리일 것이다.*

김중천 기자

이영자 총재 초청 진해제단 예배

4월 11일 진해승리제단(책임승사 이창선, 부인회장 손춘자)은 이영자 총재를 초청하여 예배를 가졌다. 진해 군항제가 막 끝난 직후라 벚꽃은 거의 다 지었지만 이 총재를 맞이하는 진해제단 식구들은 꽃처럼 피어나기 시작했다. "어제까지 날씨가 흐리고 안 좋았는데 역시 구세주님께서 이 총재님 예배가 있는 줄 아시고 날씨를 좋게 하셨습니다. 과연 전지전능한 구세주이십니다"라고 이창선 승사는 승리제단 모든 활동에 구세주의 의지가 작용하고 있음을 피력했다.

1부 예배 시간에 구세주의 영생의 진리 말씀을 들은 후 박상구 승사의 색소폰 연주와 성도 합창이 이어졌고, 그 다음으로 오늘의 하이라이트 이 총재의 말씀이 있었다.

이 총재는 "이긴자 구세주의 존재와 능력만 믿고 의지하면서 지상천국이 이루어질 때만 기다리는 노예 신앙"이 현재 우리 승리제단의 문제라고 지적한 후 "구세주가 출현하면 전지전능의 기적이 일어나 갑자기 하늘나라 지상천국이 이루어지고, 인간의 몸이 불사영생체로 변할 것이라는 착각에서 깨어나라"고 요구하였다. 또한 "필사즉생의 각오로 나의 습관을 죽이지 않으면 그 습관에 죽임을 당한다는 각오로 자신과의 싸움에 용맹하게 임하여 결국 이긴자 구세주가 되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고 강조하였다. 이를 위하여 이 총재는 '한걸음만 더' 운동을 제안하였다. 힘들어 포기하고 싶을 때 '한걸음만 더' 하나님의 편으로 움직이고, 전도할 시간이 없다고 할 때 '한 장만 더' 전도지를 돌리고, 형제에게 못마땅한 마음이 있을 때 '한 마음만 더' 형제를 포용하는 여유를 갖자고 제안하였다.*

금주의 말씀 요절

전 세계를 향하여 선포한다(59)

"하나님의 신부요 시온성의 처녀들"

여러분들이 다 시온성의 처녀들이다. 남자든 여자든 늙은이든 모두다 하나님의 신부요 시온성의 처녀들인 것이다. 매일같이 삼천년성에 와서 신랑 되신 이기신 하나님을 만나 뵈는 여러분들의 가슴에 기쁨과 평화가 넘쳐나는 것은 바로 이기신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로 끝도 없이 가득가득 채워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자신의 마음속에 신랑 되신 이기신 하나님을 영접하게 되면 부부일신(夫婦一身)이란 말 그대로 신인합일(神人合一)이 되어 영생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

이제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나를 완전히 제거해 버리고 신랑 되신 하나님이 인간 속에 들어와 본래 자리를 되찾아 하나님과 사람이 합하여 하나가 되는 것이다. 원래 인간의 몸은 하나님의 집이었다. 그 집을 지금으로부터 6,000년 전에 마귀가 되는 나라는 영에게 빼앗겼다가 오늘날 하나님께서 다시 되찾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제는 '누가 아담이고, 누가 해와다' 하는 이야기는 구식 케케묵은 이야기에 불과하다. 완성의 하나님이 나오신 고로 온 인류가 다 해와요, 하나님의 신부이기 때문이다.*

구도의 길

마음은 어디에 있나요?

바늘 끝 위에도 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주보다 더 커질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라고 묻는다면 뭐라고 답하겠는가? 마음이다. 마음은 우주보다 더 커질 수 있는 반면에 바늘 끝보다 더 작아질 수 있는 것이다. "저 사람은 부처님 가운데 토막 같아"라고 한다면 마음이 자비롭고 큰 것을 뜻하며, "저 사람 속은 밴댕이 콧구멍 같아"라면 속 좁은 사람을 일컬을 때 쓰는 표현이다.

그런데 사람의 마음은 도대체 어디에 있는데 이렇게 각양각색일까? 뇌과학자들에 의하면 사람의 마음은 뇌에 있다고 한다. 그들은 마음이란 뇌의 어떤 활동에 의해 나타나는 것으로 뇌가 없으면 마음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한편 마음과 뇌는 다르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다. "의식이 제일 꼭대기에 있으며, 마음이 그 다음에, 두뇌는 그 아래에 있다고 봅니다. 의식은 두뇌와 상호작용을 하지만 두뇌는 의식의 전체가 아닙니다" 래리 도시 박사의 말이다(KBS특별기획 다큐멘터리 마음, 예담출판사).

유식학(唯識學)에서도 두뇌와 마음은 다르다고 한다. "뇌 과학의 입장에서 보면 뇌로부터 마음이 생깁니다. 그런데 그 마음은 뇌 속에 있는 것은 아니고 뇌로부터 나와서 뇌의 바깥에서 뇌의 존재를 의식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머리가 아플 때 어딘가 뇌혈관이 막힌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하여 자신의 뇌의 존재에 의식을 향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마음속에 뇌가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마음은 3차원적인 크기를 가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보다 정확하게는 마음속에 있다는 것은 마음을 떠나 있지 않다고 해야 할 것입니다(마음의 비밀, 요코하마 코이츠, 민족사)"

이처럼 마음의 소재를 밝히는 것은 현대과학뿐만 아니라 종교와 철학에서도 중요한 문제이지만 어떤 설이 맞는지 확실하지는 않다. 다만 필자의 견해로는 마음은 뇌와 다르다고 보는 유식학의 견해에 동의한다. 하지만 유식학에서도 명쾌하게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는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영생학에서는 마음은 핏속에 있다고 말한다. 이에 따르면 뇌는 피를 통하여 생각과 감정 등을 표현해 주는 기관에 불과할 뿐이다. 수술로 많은 양의 피를 수혈(輸血)받은 환자가 수술 후 성격이 변하거나, 수술 전에는 전혀 꾸지 않았던 꿈을 꾸기도 한다. 장기이식을 받은 환자의 성격이 변하였다는 이야기도 많이 있다. 이것은 뇌는 변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가 변해서 마음이 변한 사례임을 알 수 있다. 마음은 핏속에 있는 것이다.*